



사진 1 = 전통 목동 마을 전경

“새로운 숲을 만나다” 시리즈

슬로베니아 벨리카 플라니나 숲

글·사진_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배상원 원장

벨리카 플라니나(Velika Planina)는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북쪽으로 50km 떨어진 슬로베니아 캄니크-사빈야 알프스(Kamnik-Savinja Alps)에 위치한 카르스트화된 산악 고원이다.

유럽 최대 규모의 고산 목초지로 면적은 5.6km², 해발 약 1,500~1600m 사이에 있으며, 가장 높은 곳은 그라디슈체(Gradišče, 1,666m)이고, 전통 목동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사진 2 = 주차장 주변 독일 가문비나무 숲

전통 목동 마을에는 가문비나무 판자로 만든 낮은 지붕의 타원형 지붕을 가진 독특한 건축 양식의 오두막(Bajta)이 140여 채 있는데 전통적인 거주공간으로 확장된 지붕의 빈공간은 가축을 보호하기에 적합하다. 마을에서 프레스카르 박물관(Preskar's Hut)과 눈의 성모 마리아 예배당이 있다. 마을에는 상주 주민이 거의 없지만, 여름철(6월~9월)에는 목동들이 소를 방목하며 거주한다. 이 목동 마을은 유럽에서 이 규모로 보존된 몇 안 되는 목축민 마을 중 하나로, 겨울에는 스키, 여름에는 하이킹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사진 3 = 고원지대 초지와 독일 가문비나무

벨리카 플라니나는 캄니슈카 비스트리차 계곡이 있는 케이블카나 산중턱까지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다.수도 류블라냐에서 차량으로 해발 1400m에 있는 우시베츠(Ušivec) 주차장에 도착하면 주차장 주변으로는 독일 가문비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해발이 높은 지역이어선지 수관폭이 좁게 자라서 나무가 가늘고 길게 자란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수고 20~30m의 독일 가문비나무 숲에 난 오솔길을 따라 산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독일 가문비나무는 사라지고 평평한 고원지대가 나타난다. 독일 가문나무는 군데 군데 무리로 자라고 있는 고원지대의 초록빛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다.

초원으로 난 평평한 오솔길을 가다 보면 멀리 독일 가문비나무 숲이 보이고 초원 일부에는 노랑, 하양 그리고 보라색 꽃들이 가득 자라고 있어 마치 꽃밭에 들어선 것처럼 느껴진다. 또한 오두막집 띄엄띄엄 자리를 잡고 있어 목가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초원 지대에는 노랑색 금매화, 조밥나물과 자주색 물망초, 용담 등이 자라고 있어 더 친숙해 보인다. 초원 위의 나지막한 언덕을 지나 안으로 더 들어가면 오두막집 수십 채가 들어서 있는 목동마을이 나타난다. 마을 건너편 언덕 위에는 눈의 성모 마리아



사진 4 = 초원의 야생화 (조밥나물)

예배당(해발 1,560m)이 있는데 이 예배당은 2차 세계대전 때 소실된 것을 1988년에 재건한 작은 예배당으로 이곳에 올라서면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가 있다. 마을에는 크고 작은 오두막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중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의 오두막은 목동들의 과거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프레스카르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마을 주변으로 평평하고 넓은 웅덩이나 땅이 함몰된 지형이 종종 나타나는데 이 지역이 석회암지대로 침식이 일어나면서 생긴 것이다.

마을을 뒤로하고 산으로 더 오르다 보면 유럽 낙엽송이 단목으로, 독일 가문비나무가 무리로 자라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그라디슈체로 올라가면 수고 1m 정도의 키 작은 무고 소나무가 정상 부근에 가득 자라고 있어 멀리서 보면 진초록 양탄자를 깔아 놓은 것처럼 보인다.

그라디슈체에서 보이는 초원, 목동마을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눈 덮인 산의 풍경은 이 지역이 캄니크-사비냐 알프스라고 불리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캄니슈카 비스트리차 계곡 방향으로 가다보면 나타나는 방문객을 위한 식당, 숙소 등이 이 지역에 어울리는 오두막이나 목조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새롭게 보인다.

사진 5 = 초원의 야생화 (금매화)



정상 북서쪽으로는 높다란 바위 산들이 줄지어 서있는데 제일 왼쪽에는 캄니크-사비냐 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그린토베츠(Grintovec, 2,558m)이 있고, 그 오른쪽으로는 스퀴타(Skuta 2,532m), 플란야바(Planjava, 2394m)가 줄지어 자리 잡고 있다. 해발이 높은 산이 어서인지 늦은 봄까지 정상부와 정상부 계곡에 늦봄까지 하얀 눈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이 지역이 스키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라디슈체에서 계곡 쪽으로 내려가면 눈잣나무 숲은 사라지고 독일 가문비나무와 유럽 낙엽송이 같이 자라는 침엽수 혼효림이 나타나는데 봄에는 짙은 초록색 독일 가문비나무 잎과 유럽 낙엽송 연초록색 잎을 다양한 초록색 세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사진 6 = 그라디슈체의 무고 소나무



숲 아래쪽 햇빛이 많이 드는 공간에는 고산지대에 자라는 보랏빛 꽃이 피는 높이 30~4cm의 윈터 히스 (Winter Heath)가 양탄자처럼 바닥을 가득 채우고 있고 중간 중간에 초록빛 유럽 블루베리가 자라고 있다. 아래로 더 내려가면 회색빛 줄기의 너도밤나무와 독일 가문비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 연초록 너도밤 나무 사이에 서있는 짙은 초록빛 독일 가문비나무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캄니슈카 비스트리차 계곡으로 더 내려가다 보면 경사가 심한 곳에는 유럽 낙엽송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고, 독일 가문비나무는 듽성듬성 자리를 잡고 있고, 계곡부 낮은 지대에는 너도밤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 해발고에 따라 자라는 나무들이 변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다.

사진 7 = 그라디슈체에서 보이는 눈 덮인 고산 연봉 그린토베츠 (2,558m), 오른쪽 스퀴타(2,532m), 플란야바(2394m)

사진 8 = 보랏빛 윈터 히스 꽃

사진 9 = 낙엽송 독일가문비 혼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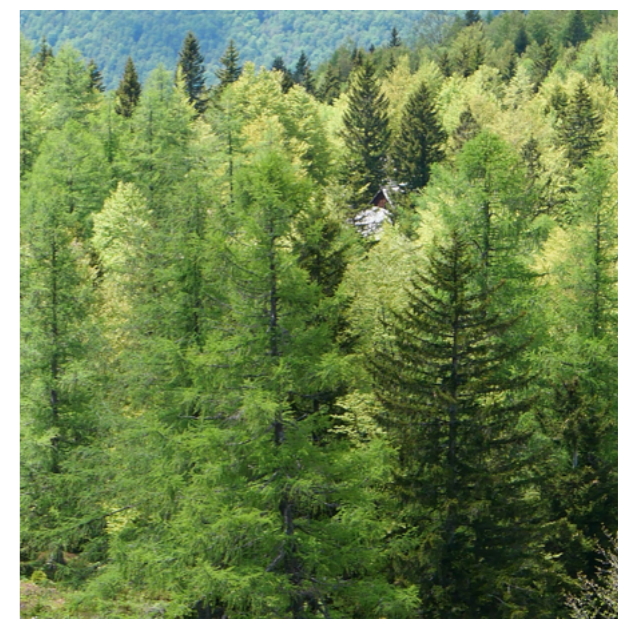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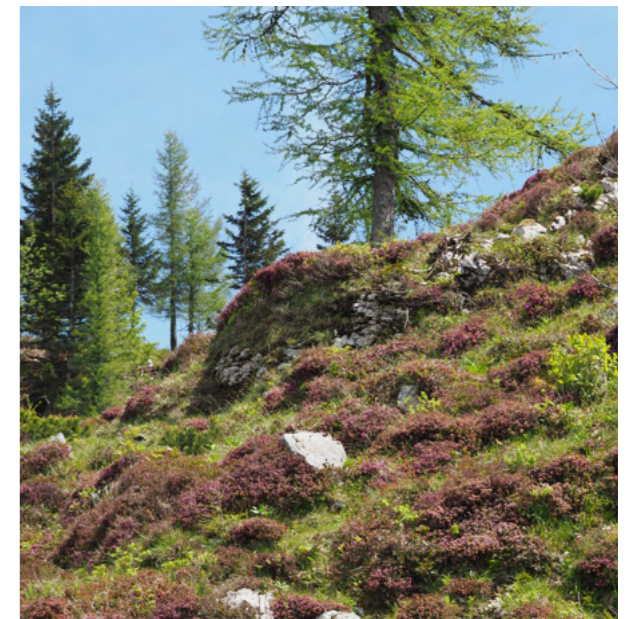




사진 10 = 독일가문비 너도밤나무 혼효림

벨리카 플라니나는 해발 1,500~1,600m 지대에서는 고원 초원지대로 전통적인 산악지 목축과 목동 마을을 체험 할 수 있는 곳인 동시에 등산 및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고원지대의 다양한 식생, 야생화 그리고 해발고에 따라 눈잣나무, 독일가문비나무, 유럽 낙엽송, 너도밤나무 숲들이 분포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도 높은 지역이다. 벨리카 플라니나는 고원 지역 목동마을 등 문화적 가치, 다양한 휴양 기능 그리고 다양한 야생화, 숲 등의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여겨진다.

사진 11 = 사면 하부 너도밤나무 숲

